

한국 말더듬 성인 쓰기 내용의 오리진과 폰 분석

이경재^a · 신문자^{b,§}

^a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의사소통장애학과, ^b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 교신저자

신문자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e-mail:
moonjashin@chosun.ac.kr
tel.: 062-230-6187

배경 및 목적: 말더듬 성인은 자신의 말과 말더듬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외재적 통제소를 보인다. 통제소와 같은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설문지 형태의 평가 도구가 주로 쓰이나, 이러한 형태의 평가 도구는 제한된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개인적인 말더듬 성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자유로운 발화 또는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석은 말더듬 성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도구인 『오리진-폰 척도(The Origin and Pawn Scales)』를 이용하여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방법:** 총 10명의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오리진과 폰 성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 말더듬 성인 역시 영어권 말더듬 성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또한, 독립된 분석자는 연습과정을 통하여 신뢰롭게 오리진-폰 척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내용분석 도구인 오리진-폰 척도가 한국어 자료에서도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말더듬 성인의 평가도구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척각장애연구』, 2010;15:433-443.

핵심어: 한국 말더듬 성인, 내용분석, 오리진-폰

I. 서론

말더듬 성인은 유창성 문제 뿐 만이 아니라 오랜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내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더듬 성인은 의사소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Andrews & Cutler, 1974; Manning, 2010). 말더듬 성인은 또한 유창성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운이나 환경에 따라 나타난다고 여기며, 이는 외재적 통제소(external locus of control)로 나타난다. 통제소(locus of control)란 행동의 결과 혹은 강화물이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 자신의 성격에 달려있다고(내재적 통제소), 아니면 운, 운명, 혹은 외부 환경에 의존한다고(외재적 통제소)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Rotter, 1966). 말더듬 성인은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말과 유창성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게 되며, 이는 내재적 통제소로 나타난다. 이

러한 치료 중 통제소의 변화는 유창성 증진 및 치료 후 유창성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다(Craig, Franklin & Andrews, 1984). 그러므로 말더듬 성인의 경우, 비 유창성의 빈도와 같은 외적인 특성 뿐 만이 아니라 통제소와 같은 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소와 같은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정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검사도구가 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Craig, Franklin & Andrews (1984)는 말더듬 성인의 치료 중 진전과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하기 위하여 『행동통제소(The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LCB, 이하 LCB)』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LCB는 17문항으로 이루어진 리커트척도(Likert) 타입의 설문지이며, 높은 LCB 점수는 외재적 통제소를, 낮은 점수는 내재적 통제소를 의미한다. 연구결과, 집중치료를 받기 전의 말더듬 성인은 정상성인에 비하여 더 높은 LCB 점수를,

■ 게재 신청일: 2010년 7월 17일 ■ 최종 수정일: 2010년 8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0년 8월 25일

© 2010 한국언어척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즉 말더듬 성인이 정상성인과 비교하여 외재적 통제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치료 중 LCB 점수의 변화가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할 수 있었다. 치료 후에도 유창성을 유지한 참가자들은 치료 중 30% 정도의 LCB 점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재발을 보인 참가자들은 18% 정도의 LCB 점수의 증가를 보였다.

설문지 형태의 평가도구는 평가와 채점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사전에 결정된 한정된 수의 문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평가자의 감정 및 심리상태를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다. 비록 피평가자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지만, 실제 피평가자의 경험은 설문지의 문항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설문지 각각의 문항이 갖는 중요도 또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정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평가 도구는 특성(trait characteristics)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개별화된 심리 및 감정의 상태(state characteristics) 변화를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이로 인해 LCB를 이용하여 말더듬 성인의 통제소를 살펴본 사전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 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Craig와 동료들의 연구와는 달리 말더듬 성인이 정상 성인과 비교하여 LCB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거나(De Nil & Kroll, 1995), 치료 중 LCB 점수의 변화가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다(Blomgren et al., 2005; De Nil & Kroll, 1995).

이와 관련하여, 자발화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피평가자의 감정 및 심리상태를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왔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그러므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통제소와 유사한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오리진-폰 척도(The Origin and Pawn Scales)』(Westbrook & Viney, 1980)는 말더듬 성인의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LCB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용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화자의 심리 및 감정 상태가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표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간단한 예로 “나 화났어”라는 표현은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화자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여 화자의 그러한 감정 및 심리상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내용분석의 기초이며, 내용분석 도구는 특정한 심리상태 및 감정을 내용분석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내용분석 도구는 언어라는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내용분석 척도를 이용하여 얻게 된 결과는, 이후 양적인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발화가 내용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평가자의 간섭이 최소화 된 자유발화가 이용된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자료 수집 과정에서 피평가자가 겪는 제한이 적을 경우, 피평가자는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DiLollo, Manning & Neimeyer, 2003). 그러므로 자유발화를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을 이용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감정 및 심리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내는 것이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현재까지 다양한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내용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 중 몇 가지는 말더듬 성인 연구에 사용되었다(DiLollo, Manning & Neimeyer, 2003; Finn, 1996; Lee, Manning & Herder, 2009; Maguire et al., 1999; Manning, Hodak & Plexico, 2005; Plexico & Manning, 2004). 특히 『오리진-폰 척도』(Westbrook & Viney, 1980)가 말더듬 성인의 심리적 상태를 비교적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Lee, Manning & Herder, 2009; Manning, Hodak & Plexico, 2005; Plexico & Manning, 2004).

오리진(Origin)과 폰(Pawn)은 행동의 원인이 자신 혹은 외부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경향성, 즉 인과소(locus of causality)를 의미한다(DeCharms, 1968; DeCharms, 1971; DeCharms & Plimpton, 1992). DeCharms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으며 이를 “자기원인(personal causation)”이라고 하였다. 비록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기는 하지만, 각 개인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서(want to), 혹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force to)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두 상황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리진”(“주”의 개념)과 “폰”(“종”의 개념)이다. 오리진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의도 혹은 선택의 결과라고 믿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 혹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오리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느낀다. 그러기에 오리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한 스스로 결정한다. 오리진은 내재적 통제소를 보이는 사람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폰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혹은 외부환경에 영향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 혹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폰은 또한 자신이 하는 일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운명에 따라 그 일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폰은 외재적 통제소를 보이는 사람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오리진-폰 척도』는 피평가자의 자발화 내용을 분석하여 DeCharms가 제안한 오리진과 폰 성향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분석 도구이며, 다양한 계층의 오리진과 폰 성향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었다(Westbrook & Viney, 1980). 외부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 이제 막 이주해 온 주부, 사지마비를 보이는 성인 등 다양한 인생 경험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진과 폰 성향을 측정한 결과, 현재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지마비를 보이는 성인 그룹은 다른 참가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오리진 점수와 적극적인 적응방식, 그리고 폰 점수와 운명적인 사고방식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오리진과 폰이 각각 내재적, 외재적 통제소를 지닌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LCB가 통제소를 일원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반면, 오리진-폰 척도는 이원적인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LCB는 하나의 점수로 통제소를 표현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외재적 통제소를, 낮은 점수는 내재적 통제소를 나타낸다. 하지만 정상성인과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오리진과 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지 않았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즉, 높은 오리진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낮은 폰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분석과 인과소의 이원적인 관점으로 인해 『오리진-폰 척도』는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말더듬 성인의 내재적 특성을 민감하고 신뢰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 우선 Plexico & Manning (2004)은 유창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과거 유창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였을 때와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의 심리상태를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 성인은 유창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였을 때에는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유창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폰 점수와 높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말더듬 성인의 오리진과 폰 성향의 변화는 공식, 비공식적인 말더듬 치료에서도 관찰되었다. 우선 Manning, Hodak & Plexico (2005)는 비공식 치료를 받는 말더듬 성인이 오리진 점수의 증가와 폰 점수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자는 말더듬에 대한 정보와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치료사와 주고받았다. 이러한 비공식 치료에서의 이메일을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기 이메일에서는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가, 이후에는 낮은 폰 점수와 높은 오리진 점수가 나타났다.

Lee, Manning & Herder (2009)는 3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말더듬 성인들 역시 오리진 성향의 증가와 폰 성향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유창성 조절, 둔감화 등의 과제를 목표로 하는 3주간의 말더듬 집중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 시, 실험 참가자들은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3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실험 참가자들은 오리진 성향의 증가와 폰 성향의 감소를 보여, 치료 종료 시에는 높은 오리진 점수와 낮은 폰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인터뷰 등의 자발화를 이용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쓰기 자료를 이용하여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쓰기 자료를 분석하는 것 역시 치료 중 변화를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치료 중 유창성의 증진과 『말더듬 인식 목록표(Perception of Stuttering Inventory: PSI)』(Wolf, 1967), 『말더듬 경험 평가도구(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Yaruss & Quesal, 2006) 등 다른 심리 평가 도구들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었다. 하지만 오리진, 폰과 유사하다고 여겨졌던 LCB에서는 치료 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오리진과 폰 점수 모두 LCB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리진과 폰 점수 사이에도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한 임상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한국 말더듬 성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자료가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분석 척도는 질적인 언어자료를 양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영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석 도구를 다른 언어권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적인 언어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에 맞게 내용분석 도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또한 임상 현장에서 내용분석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도구 중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오리진-폰 척도를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용분석의 단점 중의 하나인 분석자간 신뢰도가 적절히 확보될 수 있는지, 한국 말더듬 성인이 자신의 말과 말더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참가자

총 10명의 성인 말더듬 남성(평균연령: 23.9세, 표준편차: 4.8)의 쓰기 자료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의 개인 언어치료실에서 말더듬 평가 및 치료를 받은 말더듬 남성 중, 10명의 쓰기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첫 평가에서 실시한 『말더듬 중증도 도구-3(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SSI-3)』(Riley, 1994) 결과, 세 명은 약함, 세 명은 중간, 두 명은 중간-심함, 두 명은 심함 정도의 말더듬 중증도를 보였다.

2. 절차

가. 쓰기 자료

개인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말더듬 성인들은 치료 초기(3회기 이내)에 “말더듬과 나”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하였다. 치료 초기에 작성된 이러한 쓰기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글쓰기 과제 진행 중 시간 및 주제의 다른 제약은 없었다.

짧은 자료는 신뢰롭지 못한 내용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최소 70단어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권장되었다(Gottschalk & Gleser, 1969). 본 연구에 사용된 10개의 쓰기 자료 모두 70단어 이상의 길이를 보였다(평균길이 = 318.2 단어, 표준편차 = 165.8).

3. 오리진과 폰 분석

가. 분석대상 단위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영어로 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절(clause)이 분석의 기본 대상이 된다(Westbrook & Viney, 1980). 이는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절이 독립된 생각을 나타내며, 이러한 절의 구분이 영어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DiLollo, 2001).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역시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절을 분석의 기본 대상으로 하였으며(남기심·고영근, 1993), 이렇게 구분된 절은 “/”로 표현하였다(예: “말을 더듬었기에/ 학교에 안갔다./”). 안긴문장은 “//”로 표현하였으며, 안은문장은 독립된 두개의 절로 분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는// 말더듬을 친구들이 놀릴까봐//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은 “나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와 “말더듬을 친구들이 놀릴까봐”라는 두개의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나. 오리진, 폰의 분석기준

(1) 오리진의 하위구분

화자의 말, 유창성, 비유창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화자의 오리진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은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또한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에서도 아래와 같은 오리진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 역

시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

- ㄱ. 의도: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화자 스스로의 계획, 의도, 혹은 목표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나는 말더듬을 꼭 고치겠다”라는 표현은 화자의 목표 혹은 의도를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 ㄴ. 노력: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자가 노력한다는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말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였다”라는 표현은 화자의 노력을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 ㄷ. 능력: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목표를 세웠으며, 이로 인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신한다. 예를 들어, “나는 말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 ㄹ. 타인 혹은 외부 요인을 넘어섬: 다른 사람과 환경에 영향 받지 않거나 영향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외부의 시선 따위는 잊을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외부 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 ㅁ. 원인 혹은 오리진 표현: 스스로가 일상생활의 원인이거나 “오리진”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결정은 나 스스로 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자신이 모든 결정의 원인이라는 표현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2) 폰의 하위구분

화자의 말, 유창성, 비유창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은 폰으로 분석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또한 의사소통 뿐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에서도 아래와 같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 역시 폰으로 분석하였다.

- ㄱ. 의도되지 않은 결과: 행동 및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의도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그러한 행동과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말더듬은 친구 때문이었다”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 ㄴ. 노력의 결여: 어떤 목표가 달성된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다행히도 나는 그 당시에 유창했다”라는 표현은 유창성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운이라는 것을 표현하므로 폰으로 분석된다.

- ㄷ. 능력의 결여: 어떤 행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나는 표를 살 수 없었다”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 ㄹ. 타인 또는 외부의 영향: 자신의 행동과 감정이 타인 혹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말더듬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 ㅁ. 폰 표현: 자기 스스로가 일상생활의 일이나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화자의 오리진 혹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만 각각의 절을 오리진, 폰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호한 경우나 추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진 혹은 폰 어느 것으로도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리진 혹은 폰으로의 구분은 서로 중첩됨이 없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의 절은 오리진, 혹은 폰으로만 분석될 수 있을 뿐, 오리진과 폰으로 동시에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하나의 절이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하위 구분을 통하여 분석되었는지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의 절이 둘 이상의 하위 구분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나 스스로 말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말속도 조절이 자신의 의도된 혹은 계획된 행동이며 또한 화자의 노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절은 단순히 오리진으로만 분석하였으며, 또한 둘 이상의 하위구분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점 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민감하게 말더듬 성인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우선 제한된 능력을 나타낸 경우는 폰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능력을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두 세 명 앞에서만 발표할 수 있었다”와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제한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은 폰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회피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환경의 영향을 나타내므로 역시 폰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말하려고 노력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노력을 표현하므로 오리지널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말더듬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회피 등의 노력을 나타내므로 폰으로 분석하였다.

다. 변환절차

각각의 쓰기 자료는 길이가 다르므로 각각의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리지널과 폰의 수가 다를 수 있다. Westbrook & Viney (1980)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어수를 이용한 길이보정계수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도 역시 단어수를 이용한 보정계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쓰기 자료 길이에 따른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분석 결과는 비대칭한 분포를 보일 수 있으므로, Westbrook & Viney (1980)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변환절차를 사용하여 오리지널과 폰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text{길이보정계수} = (1 / \text{자료의 단어 수}) \times 100$$

오리지널 점수

$$= \sqrt{(\text{오리지널점수} + 0.5) \times \text{길이보정계수}}$$

폰 점수

$$= \sqrt{(\text{폰점수} + 0.5) \times \text{길이보정계수}}$$

4. 신뢰도 측정 및 통계분석

가. 신뢰도 측정

본 연구의 제 1 저자가 독립된 분석자에게 오리지널-폰 척도의 분석안내문을 제공하여 독립된 분석자가 분석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석 안내문에는 두개의 쓰기 자료가 포함되어 독립된 분석자가 스스로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된 분석자는 말더듬 성인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독립된 분석자가 분석 안내문에 포함된 두개의 쓰기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제 1 저자와 독립된 분석자는 한 시간 정도 독립된 저자의 분석 결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분석 연습과정을 거친 후 독립된 분석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총 분석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2

개의 쓰기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립된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 코헨의 카파(Kohen's kappa)를 이용하여 분석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오리지널 분석의 경우 .75, 폰 분석의 경우 .72의 높은 분석자간 신뢰도를 보였다.

총 76개의 분석 단위 중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리지널로 분석한 절은 7개, 독립된 분석자만 오리지널로 분석한 절은 4개,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리지널이 아닌 것으로 분석한 절은 65개 이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과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절을 독립된 분석자는 화자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오리지널로 분석하였으나 제 1 저자는 오리지널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오리지널로 분석하지 않았다.

폰의 경우 총 76개의 분석 단위 중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폰으로 분석한 절은 19개, 제 1 저자만 폰으로 분석한 절은 네 개, 독립된 분석자만 폰으로 분석한 절이 다섯 개, 두 명 모두 폰으로 분석하지 않은 절이 48개였다.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녀야만 했는데”는 타인 혹은 외부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제 1 저자는 폰으로 분석하였으나 독립된 분석자는 그러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폰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반면 독립된 분석자는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를 폰으로 분석하였는데, 제 1 저자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꼭 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폰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리지널과 폰 분석이 분석자간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하나의 절이 오리지널 혹은 폰 성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지,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 상태가 오리지널 혹은 폰 성향인지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 통계분석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표본 t -검정(paired-sample t -test)을 이용하여 오리지널과 폰 점수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신뢰도 분석에 이용된 두 개의 쓰기 자료의 경우, 제 1 저자와 독립된 분석자의 분석이 다른 경우에도 다른 자료와의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를 따랐다.

Ⅲ.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오리진과 폰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9) = 4.133, p < .001$), 오리진 점수(평균 = 1.51, 표준편차 = 0.29)가 폰 점수(평균 = 2.30, 표준편차 = 0.4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표-1>). 비록 연구방법 등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해외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 말더듬 성인의 오리진과 폰 점수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었다. 예를 들어 Westbrook & Viney (1980)가 보고한 여러 그룹들 중, 외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룹은 높은 오리진 점수(평균 = 1.05, 표준편차 = 0.40)와 낮은 폰 점수(평균 = 0.99, 표준편차 = 0.40)를 보였다. 이외의 여러 그룹들이 높은 폰 점수를 보였으나 특히 사지마비를 보인 그룹이 낮은 오리진 점수(평균 = 0.75, 표준편차 = 0.21)와 높은 폰 점수(평균 = 1.22, 표준편차 = 0.33)를 보였으며 그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전술하였듯이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으나 개인에 따른 점수 분포 차이가 있었다. 총 10명의 참가자 중 8명은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으며, 두 점수의 차이는 비교적 큰 편이었다. 반면 두 명의 참가자는 오리진과 폰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참가자 6의 오리진과 폰 점수의 분포는 다른 참가자들과 유사하나 오리진 점수(1.46)와 폰 점수(1.58)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참가자 4는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높은 오리진 점수(2.00)와 낮은 폰 점수(1.92)를 보여,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표-1> 말더듬 성인 참가자의 오리진과 폰 점수

참가자	오리진 점수	폰 점수
1	1.61	2.59
2	0.93	2.52
3	1.34	3.20
4	2.00	1.92
5	1.81	2.23
6	1.46	2.04
7	1.54	1.58
8	1.67	2.13
9	1.44	2.49
10	1.32	1.91
평균	1.51 (표준편차: 0.29)	2.30 (표준편차: 0.4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글쓰기 내용분석을 통한 오리진과 폰 척도가 한국어 자료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말더듬 성인 역시 이전 영어권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 말더듬 성인 또한 자신의 말과 말더듬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말더듬 성인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 등과 같은 내적 특성은 말더듬의 원인이 아닌 말더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Manning, 2010).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말더듬의 가장 큰 차이는 말더듬의 경우, 스스로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통제력의 상실(loss of control)일 것이다(Manning, 2010). 말더듬 성인의 경우, 이러한 통제력의 상실과 상황에 따른 비유창성의 차이를 경험하기에 말더듬과 유창성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낮은 오리진 성향), 우연히 주어지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높은 폰 성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반응은 개인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통제력의 상실과 상황에 따른 변이라는 말더듬의 근본적 특성에 기초한 낮은 오리진과 높은 폰 성향이 한국 말더듬 성인에게서도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말더듬 성인은 내적 특성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말더듬 성인의 치료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설문지 형태의 LCB와 비교, 오리진-폰 척도의 가장 큰 장점은 오리진과 폰의 이원적인 성격과 자유로운 발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말더듬 성인의 대다수가 말더듬 성인의 일반적인 경향인 낮은 오리진과 높은 폰 성향을 보였으며, 그 둘의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히려 반대의 경향성인 높은 오리진과 낮은 폰 점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e, Manning & Herder (2009)는 말더듬 성인은 평가 시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오리진과 폰 성향의 변화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변화 형태는 오리진 점수의 증

가와 폰 점수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이었지만, 오리진 점수의 증가 혹은 폰 점수의 감소만 보이는 경우, 혹은 이와는 반대로 오리진 점수의 감소와 폰 점수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 시의 내적 특성이 치료 중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내적 특성의 변화가 치료 후 재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도구가 한국어 쓰기 자료에서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앞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이 절 (clause)이었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등으로 인하여 분석단위인 절의 수가 영어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에, 오리진과 폰 점수 역시, 본 연구에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어 내용분석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단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참가 대상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분석 기준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내용분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분석자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짧은 연습시간을 거친 경우라도 신뢰롭게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오리진과 폰 분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평가도구의 경우, 설문지를 분석하는 데에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으며 분석자간 신뢰도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오리진-폰 척도와 같은 내용분석 도구의 경우, 실험자는 분석 단위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 및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지 판단을 내려야한다. 비록 내용분석이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피평가자의 발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실험자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분석자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연구자들이 내용분석 도구를 신뢰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자간 신뢰도는 이전 연구와 비교,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Plexico & Manning (2004)이 보고한 분석자간 신뢰도(코헨의 카파)는 오리진의 경우 .58, 폰의 경우 .74였으며, Lee, Manning & Herder

(2009)가 보고한 분석자간 신뢰도(코헨의 카파)는 오리진의 경우 .76, 폰의 경우 .68이었다. 특히 Lee와 동료들의 경우, 독립된 분석자는 총 다섯 시간 이상의 연습과정을 거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독립된 분석자는 한 시간 이내의 매우 짧은 연습시간을 거쳤다. 비록 본 연구가 매우 높은 수준의 분석자간 신뢰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의 독립된 분석자는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으며, 여전히 분석자간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오리진-폰 척도를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임상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자간 신뢰도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포함한 분석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단지 말더듬 성인만이 참가하였을 뿐 정상성인으로 이루어진 대조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한국 말더듬 성인이 해외 이전 연구에서도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태도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말더듬 성인의 특성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적인 자료수집 절차의 부재로 인한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estbrook & Viney (1980)은 5분 동안의 자발화 자료를, Lee, Manning & Herder (2009)는 10분 동안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초기에 이루어진 글쓰기 과제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므로 각 참가자는 서로 다른 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길이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글쓰기의 길이 차이에 따른 오리진과 폰 점수를 보정하였으나 각각의 참가자들이 표현을 다듬는 정도는 달랐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자료수집 절차를 이용하여 오리진과 폰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는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신뢰롭게 분석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말더듬 성인 역시, 영어권 말더듬 성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리진과 폰의 분석이 말더듬 성인의 평가도구 및

치료 진전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용분석 도구가 한국 말더듬 성인 연구에서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참 고 문 헌

- 남기심 · 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Andrews, G., & Cutler, J. (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 312-319.
- Blomgren, M., Ray, N., Callister, T., & Merrill, R. M. (2005). Intensive stuttering modification therapy: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509-523.
- Craig, A., Franklin, J., & Andrews, G. (1984). A scale to measure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7, 173-180.
- De Nil, L. F., & Kroll, R. 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long-term stuttering treatment outcome in adult stutter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0, 345-364.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NY: Academic Press.
- DeCharms, R. (1971). From pawns to origins: Toward self-motivation. In G. S. Lesser (Ed.),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acti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DeCharms, R., & Plimpton, F. (1992). The origin scoring system. In S. P. Smith, & Atkinson, J. W., & McClelland, D. C., & Veroff, J. (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ndbook of thematic content analysi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Lollo, A. (2001). The meaningfulness of speaker roles for fluent speakers and persons who stutt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32-38.
- DiLollo, A., Manning, W. H., & Neimeyer, R. A. (2003). Cognitive anxiety as a function of speaker role for fluent speakers and persons who stutter.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8, 167-186.
- Finn, P. (1996).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recovery from stuttering without formal treat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9, 1171-1181.
- Gottschalk, L. A., & Gleser, G. C. (1969).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stat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verbal behavio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ttschalk, L. A., Winget, C., & Gleser, G. C. (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Gottschalk-Gleser content analysis scal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K., & Manning, W. H., & Herder, C. (2009). Determining successful therapeutic changes with Origin and Pawn scaling.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annual conference*. New Orleans, LA.
- Maguire, G. A., Gottschalk, L. A., Riley, G. D., Franklin, D. L., Bechtel, R. J., & Ashurst, J. (1999). Stuttering: Neuropsychiatric features measured by content analysis of speech and the effect of risperidone on stuttering severity. *Comprehensive Psychiatry*, 40, 308-314.
- Manning, W. H. (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Clifton Park, NY: Delmar, Cengage Learning.
- Manning, W. H., & Hodak, M., & Plexico, L. (2005). *Letters from Sarajevo*. Paper presented at ISAD online con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mankato.msus.edu/comdis/isad/isadcon.html>.
- Plexico, L., & Manning, W. H. (2004). *Locus of control for persons who stutter*.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annual conference*. Philadelphia, PA.
- Riley, G. (1994).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3rd ed.). Austin, TX: Pro-Ed.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tion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ized Applied*, 80, 1-28.
- Westbrook, M. T., & Viney, L. L. (1980). Scales measuring people's perception of themselves as Origins and Paw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167-174.
- Woolf, G. (1967).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 158-171.
- Yaruss, J. S., & Quesal, R. W. (2006).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Documenting multiple outcomes in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 90-115.

ABSTRACT

The Origin and Pawn Analysis of Writing Samples of Korean Adults who Stutter

Kyungjae Lee^a · Moonja Shin^{b,§}

^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Oklahoma State University, Stillwater, OK, USA

^b The Divi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Moonja Shin, EdD,
The Divi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Gwangju,
Korea
e-mail:
moonjashin@chosun.ac.kr
tel.: + 82 62 230 6187

Background & Objectives: Adults who stutter commonly believe that they cannot control their speech or disfluency, reflecting external locus of control. Questionnaire-type measures have been used to determine intrinsic features of adults who stutter, including locus of control. However, such questionnaire-type measures which include a limited number of items may not be able to sensitively indicate individualized changes in adults who stutter. However, content analysis of freely-spoken or written narratives with object criteria can sensitively and reliably indicate changes in adults who stutter.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writing samples of Korean adults who stutter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which is a content analysis scale. **Methods:** The writing samples of ten Korean adults who stutter were analyzed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Results:** Korean adults who stutter showed high Pawn scores and low Origin scores, a pattern also indicated by English-speaking adults who stutter. Moreover, an independent rater reliably analyzed the writing samples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after some practice. **Discussion & Conclusion:**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 that the Origin and Pawn Scales can be reliably applied to Korean adults who stutter for use as an assessment too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433-443)

Key Words: Korean, adults, stutter, content analysis, Origin scale, Pawn scale

REFERENCES

- Andrews, G., & Cutler, J. (1974). Stuttering therapy: The relation between changes in symptom level and attitud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9, 312-319.
- Blomgren, M., Ray, N., Callister, T., & Merrill, R. M. (2005). Intensive stuttering modification therapy: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509-523.
- Craig, A., Franklin, J., & Andrews, G. (1984). A scale to measure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7, 173-180.
- De Nil, L. F., & Kroll, R. 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long-term stuttering treatment outcome in adult stutterer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0, 345-364.
- DeCharms, R. (1968). *Personal causation: The internal affective determinants of behavior*. New York, NY: Academic Press.
- DeCharms, R. (1971). From pawns to origins: Toward self-motivation. In G. S. Lesser (Ed.), *Psychology and educational practice*.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 DeCharms, R., & Plimpton, F. (1992). The origin scoring system. In S. P. Smith, & Atkinson, J. W., & McClelland, D. C., & Veroff, J. (Ed.),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ndbook of thematic content analysi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Lollo, A. (2001). The meaningfulness of speaker roles for fluent speakers and persons who stutte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32-38.
- DiLollo, A., Manning, W. H., & Neimeyer, R. A. (2003). Cognitive anxiety as a function of speaker role for fluent speakers and persons who stutter. *Journal of*

■ Received, July 17, 2010 ■ Final revision received, August 16, 2010 ■ Accepted, August 25, 2010.

© 2010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Fluency Disorders, 28, 167-186.
- Finn, P. (1996). Establishing the validity of recovery from stuttering without formal treatmen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9*, 1171-1181.
- Gottschalk, L. A., & Gleser, G. C. (1969).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stat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verbal behavio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ttschalk, L. A., Winget, C., & Gleser, G. C. (1969).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Gottschalk-Gleser content analysis scal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e, K., & Manning, W. H., & Herder, C. (2009). Determining successful therapeutic changes with Origin and Pawn scaling.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New Orleans, LA.
- Maguire, G. A., Gottschalk, L. A., Riley, G. D., Franklin, D. L., Bechtel, R. J., & Ashurst, J. (1999). Stuttering: Neuropsychiatric features measured by content analysis of speech and the effect of risperidone on stuttering severity. *Comprehensive Psychiatry, 40*, 308-314.
- Manning, W. H. (2010).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3rd ed.). Clifton Park, NY: Delmar, Cengage Learning.
- Manning, W. H., & Hodak, M., & Plexico, L. (2005). *Letters from Sarajevo*. Paper presented at ISAD online conference. Retrieved from <http://www.mankato.msus.edu/comdis/isad/isadcon.html>.
- Nam, K. S., & Ko, Y. G. (1993). *Standard Korean grammar*. Seoul: Top Publishing.
- Plexico, L., & Manning, W. H. (2004). *Locus of control for persons who stutter*.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Philadelphia, PA.
- Riley, G. (1994).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3rd ed.). Austin, TX: Pro-Ed.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tion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ized Applied, 80*, 1-28.
- Westbrook, M. T., & Viney, L. L. (1980). Scales measuring people's perception of themselves as Origins and Paw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167-174.
- Woolf, G.(1967). The assessment of stuttering as struggle, avoidance, and expectancy.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2*, 158-171.
- Yaruss, J. S., & Quesal, R. W. (2006).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Documenting multiple outcomes in stuttering treatment.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 90-115.